

광주 청년 유출 막고 합계출산율 회복 나선다

NEW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5개년 인구정책 확정...11조7056억 투입 139개 과제 실행 '아이키움 광주 4대 케어' 확대...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 AX실증밸리·미래차국가산단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광주시에 오는 2029년까지 약 11조 7056억원을 투입,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와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에 나선다.

시는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인구정책 로드맵을 추진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인구정책위원회가 5년 간(2025~2029년) 인구정책 기본방향에 담은 '제2차 광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ZERO),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인구 유입 경제 실현, 활력있는 도시공간,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12대 추진전략, 29개 핵심과제, 13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90년대생(25~34세)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

주 4대 케어'인 현금성, 돌봄, 의료, 일·생활 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하고,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보 10시 출근제'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임신·출산 대체인력비(100만원씩, 3개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 컨설팅, 공공심야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등으로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에 나선다.

광주인구 순유출의 75.4%(2024년 기준)가 청년층이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연결해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전격한다.

인공지능(AI) 2단계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등을 본격 가동,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밸리'를 통해 청년창업 창업초기 기업 발굴 거점으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RISE)를 강화한다.

인공지능·문화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한 고급 인재 양성도 청년 일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일경험사업, 구직 지원 통합관리를 위한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을 통해 청년의 교육·취업·

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드밴스 스타필드)은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여가시설 랜드마크다.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해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또 5·18 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한 오일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리트퍼포먼스, 뮤직페스티벌 등 여름축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서창역사 축제 등 가을축제, 빛과 소망의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 축제·행사·마이스를 통한 브랜드인 'G-페스타'를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광주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도시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민선 8기 복지분야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시민 모두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망에 더해 의료돌봄으로 확장하는 등 보건서비스 영역의 질을 확장한다.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건립, 청년·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가치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다문화가정 산모돌봄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도시매력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중 일자리가 핵심이다"며 "산업은 지키고 창업은 늘리고 보건서비스 영역의 질을 높여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25 광주 핵심전략산업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자동차·AI 전문기업, 광주에 1060억 투자

사·10개 기업, 전략산업 투자협약...고용창출 192명 기아, 신형 셀토스 출시 맞춰 투자...산학연 협력 강화

자동차부품과 인공지능 전문 10개 기업이 광주에 1060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현대하이텍, ㈜광우알엔에이, ㈜수인산업, ㈜엠피에스, 아이엔테크(주), ㈜와이에스피, ㈜정원안전기술, ㈜스위치온, ㈜대원정보기술, ㈜에스와이컴퍼니 등 총 10개 기업과 총 1060억원 규모의 '광주 전략산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0개 투자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부품, 전장, 급형, 인공지능(AI) 부품소재 등 광주 주력산

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다.

이들 기업은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자동차·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투자하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192명의 신규 일자리를 통해 지역 고용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광주에 생산기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해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은 단순 투자유치를 넘어 광주시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투자유치 단계부터 장애요인 해결, 애로사항 청취에 적극 힘쓰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사업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2024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타 지자체 대비 5% 상향된 70%의 국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투자유치 단계부터 장애요인 해결, 애로사항 청취에 적극 힘쓰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사업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2024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타 지자체 대비 5% 상향된 70%의 국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반 강화 599억 투입

시설 지원·어장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6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지역 어업인과 수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총 599억원을 들여 친환경에너지 장비 및 시설 지원, 친환경 수산물 육성, 어장환경 개선 향상, 수산업 경쟁력 강화,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친환경에너지 장비 및 시설 지원 분야 사업비는 176억원이다. 이 가운데 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핵심 사업인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히트 펌프 등을 양식장에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양식 중 발생하

는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고·저수은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사료 원료 및 배합 사료 가격 인상에 대응,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친환경수산물 육성 분야는 소비자가 신뢰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76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함께 전남의 우수 수산물을 국제적으로 알리도록 양식 수산물의 국제인증(ASC) 비용

을 지원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금도 지급한다.

어장환경 개선 분야엔 319억원을 지원한다.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고, 깨끗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을 중심으로 인증부표 286만 개를 보급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종합정책 수립을 위해 8억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전남 김의 세계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김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전기굴착기 구매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등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차량 규모와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장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인은 8년간 의무 운영을 해야 하며,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

하는 경우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내 폐차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5년내 수출로 말소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살마? 미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